

독자권익위원 칼럼

김계훈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순환기내과 교수



우리는 아프면 습관처럼 묻는다. “명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정작 묻지 않는다. “왜 이 병이 여기까지 왔습니까?”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는 심혈관 질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암 다음으로 심장 질환이 2위를 차지한다. 하지만 암이 여러 장기를 합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일 장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질환은 여전히 심장 질환이다. 따라서 건강하게 백세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장병에 대한 이해와 예방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치료’에는 집착하면서 ‘예방’에는 무심하다. 명의를 찾는 열정은 뜨겁지만, 자신의 혈압 수치 하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병이 생기기 전 수년, 아니 수십 년 동안 쌓여온 위험 신호는 철저히 외면한다. 그러다 병이 터지면 비로소 최고의 병원과 의사를 찾는다. 이 얼마나 뒤바뀐 순서인가?

중국의 명의 편작은 가장 유명했지만 스스로를 가장 부

심장병, 누가 명의인가?

족한 의사라 했다. 큰 형은 병이 생기기 전에 원인을 제거했고, 둘째 형은 병의 초기 단계에서 치료했다.

반면 편작은 병이 깊어진 뒤에야 치료했기에 이름이 알려졌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의료 현실을 정확히 꿰뚫는다. 우리가 찾는 ‘명의’는 사실 가장 늦게 개입하는 의사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사실 가장 뛰어난 의사는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큰형과 같은 의사가 아니겠는가?

심장병은 결코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비만이 오랜 시간에 걸쳐 혈관을 망가뜨린 결과다. 이미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사건’이 아니라 위험 요인들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결과’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결과만을 문제 삼는다.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죽음은 이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취임 시 건강하던 그는 2차 세계대전과 재선을 거처며 혈압이 점점 상승(1935년 135/78mmHg, 1941년 188/105mmHg, 1944년 260/150mmHg)하고 심장 비대와 단백뇨 등 장기 손상이 나타났다.

결국 1945년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혈압 260/150mmHg). 당시 주치의는 이를 ‘정전벽력’이라 표현했지만,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주치의의 무능에 의한 ‘예고된 인재’였다. 즉, 위험 인자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외래 진료실에서 만나는 수많은 환자들이 “갑자기 심장병이 생겼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의 혈관은 결코 ‘갑자기’ 나빠지지 않았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경고를 무시해 왔을 뿐이다. 그리고 그 대가를 ‘운이 나빠다’는 말로 포장한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어디에 명의가 있습니까?”가 아니라, “나는 내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가?”라고.

심혈관질환은 예방 가능한 질환이다. 생활 습관을 바꾸고, 위험 인자를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물론 모든 질병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상당수의 심장질환은 우리가 선택하는 삶의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병이 생긴 후 병을 극적으로 고쳐내는 유능한 의사를 만나 치료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결국 진정한 명의는 멀리 있는 유명한 의사가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는 바로 ‘나 자신’일 수 있다. 독자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의 명의가 되어 심장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백세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대한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나는 이미 늦은 뒤에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나를 위한 명의인가?”

기고

고정환

광주시립극단현역단 운영실장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음이 공기 속에서 사라질 때, 그제야 비로소 숨을 고른다. 길게 이어지던 긴장과 집중이 서서히 풀리며, 비로소 나 자신의 호흡을 자각하게 된다. 관객의 박수는 무대를 향하지만, 그 울림의 끝에서 나는 늘 나의 자리와 마주한다. 박수의 방향과 나의 위치는 언제나 어긋나 있지만, 그 어긋남 속에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 또한 분명해진다. 준비된 무대가 완성되는 동안, 나는 언제나 무대의 바깥에서 이 시간을 건너는 사람이다. 우리는 박수 소리에 취하기보다, 그 박수가 안전하게 마침표를 찍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무대의 이면(裏面)’이다.

하나의 공연이 완성되기까지는 수많은 손길이 필요하다. 기획의 첫 문장을 쓰는 순간부터, 그 문장이 실제 무대 위의 장면으로 구현되기까지는 긴 시간과 수많은 선택이 축적된다. 연습의 시간, 무대 설치와 점검, 그리고 막이 오르기 직전의 정적까지. 그 정적은 단순한 공백이 아니라, 수많은 준비가 응축된 밀도의 시간이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나는 다양한 역할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하며 발을 맞추는 운영 총괄자이다.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무대를 향해 움직인다.

예술인은 무대 위에서 자신의 세계를 펼친다. 그들의

무대의 끝에서, 비로소 숨을 고른다

시간은 강렬하고, 그 순간은 되돌릴 수 없다. 단 한 번의 호흡, 단 한 번의 움직임이 공연의 결을 바꾸고, 그날의 기억을 결정짓는다. 행정은 바로 그 시간을 지탱하는 뼈대다.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골조와 같다. 우리가 다루는 것은 단순한 일정과 예산이 아니라, 결국 사람과 시간, 그리고 그 사이의 신뢰다.

예술이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도약하려 한다면, 행정은 언제나 ‘유한한 현실’이라는 지면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 그 지면은 때로 단단한 기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넘어서기 어려운 경계로 작용하기도 한다. 예술감독의 뜨거운 열망 앞에 ‘예산과 규정상 여기까지가 한계’라는 답을 내놓아야 하는 순간, 행정은 흔히 예술의 날개를 꺾는 차가운 가위로 오해받곤 한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 뒤에 있는 수많은 계산과 책임,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향한 고민이 놓여 있다.

결과와 화려함만을 유일한 가치로 여기고, 그 화려함을 떠받치는 투명한 과정과 견고한 체계를 그쳐 ‘비용’이나 ‘제약’으로 치부하는 세태는 서글픈 단면이다. 숫자로 환산될 수 없는 가치를 기어오 숫자로 증명해내야만 그 존재를 인정받는 환경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균형을 잡는 일의 무게는 좀처럼 헤아림을 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숫자와 문장들 사이에서, 예술이 무너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최소한의 틀을 만들어낸다.

현정은 늘 질문을 던진다. 어디까지가 예술을 위한 선

택이고, 어디서부터가 현실의 한계인가. 그 질문에는 정답이 없고, 매번 다른 맥락 속에서 새롭게 답해야 한다. 더 나은 무대를 위해 확장해야 할 것들과 반드시 지켜야 할 균형 사이에서 우리는 때 순간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래서 행정인과 예술인은 서로 다른 길을 걷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실은 같은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 단지 서 있는 위치가 다를 뿐이다. 한쪽이 무대를 밝히는 빛이라면, 다른 한쪽은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구조이다. 그 관계는 때로 긴장과 오해를 동반하지만,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협력의 형태다.

나는 오늘날 무대 뒤 가장 어두운 자리에 선다. 그 자리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감지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리고 막이 오르고 내리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완벽한 공연은 ‘아무 문제도 없었던 공연’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야, 관객들이 오직 황홀경만을 기억하기를 바라며 나는 조용히 생각한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이 시간은 누구의 것이었는가. 무대 위의 예술가만의 것도, 무대 뒤의 행정인만의 것도 아니다. 아마도 그것은 예술인도, 행정인도 아닌, 그 경계 어딘가에서 함께 건너온 사람들의 것이며 서로의 교통과 희열을 나누어 가진 자들의 거룩한 공모지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공모를 반복하기 위해,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간다.

취재수첩

생각 여는 도서관주간

정채경

문화체육부 차장대우



4월은 책의 달이다. ‘도서관의 날’(4. 12)을 시작으로 ‘도서관주간’(4. 12~18),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4. 23)까지 이어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는 북토크와 도서관화전이 진행되고, 광주 곳곳의 공공도서관 역시 각종 프로그램으로 분주하다. 도시 전체가 ‘책’이라는 매개로 느슨하게 연결되는 모습이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속도의 차이’였다. 무엇이든 빠르게 소비되는 시대, 영상은 몇 초 안에 판단되고 정보는 스크롤 몇 번으로 넘겨진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관람객 수보다 체류 시간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 책 속 한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멈춰야 하고 한 권을 읽기 위해 시간을 들여야 해서다.

도서관은 책을 빌리는 공간을 넘어 사람과 사람, 생각과 생각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북토크와 전시, 강연, 커뮤니티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사람들은 책을 매개로 머물고 경험한다.

책은 여전히 가장 느리지만 가장 깊이 있는 방식으로 사고를 확장시키는 도구라는 점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한 권의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용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저자의 시선과 논리를 따라가며 세계를 재구성하는 경험에 가깝다. 빠르게 소비되는 콘텐츠가 주지 못하는 사유의 밀도가 여기에 있다.

도시의 문화 수준은 공영장이나 미술관의 방문객 집계수에만 결정되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책을 읽으며, 도서관을 찾고, 그 안에서 생각을 나누는가에 달려 있다. 책을 읽는 시민이 많을수록, 그 도시는 더 깊고 단단해진다.

도서관의 날과 도서관주간, 세계 책의 날. 이 연속된 시간은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질문이어야 한다. 우리는 얼마나 책과 가까이 있을까.

독자투고

우회전 통행방법, 보행자 보호가 우선

최근 우회전 통행 방법을 둘러싸고 운전자들의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면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실제 도로에서는 불필요한 정체와 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도로교통법의 취지는 ‘보행자 보호’에 있다. 따라서 운전자는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라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며 통행할 수 있다.

반대로 보행자가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하는’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또한 우회전하기 전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에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 한 후, 주변 교통 상황을 확인하며 서행해야 한다.

우회전 관련 교통법규는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인 만큼, 운전자 스스로도 법규 준수를 넘어 보행자를 배려하는 운전 습관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바른 우회전 문화 정착이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도윤 영광경찰서 경무과 경사

사설

민주 통합특별시장 경선후유증 치유 급하다

6·3지방선거, 사실상 본선이라 해도 무방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민형배 후보가 당선됐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민 후보를 특별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하는 경선 결과를 공식 발표한 것이다.

지난달 19~20일 예비경선, 지난 3~5일 본경선, 지난 12~14일 결선투표 등 장장 27일간 치러진 초대 통합특별시장 후보 경선 레이스가 사실상 막을 내린 것이다.

이번 경선은 어느 때보다 치열했다. 3번의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지지 후보에 따라 당심이 요동쳤고 당달아 민심도 갈라질대로 갈라졌다.

특히 결선투표가 ‘초박빙 혼전’으로 치달으면서 경선은 흑색선전과 후보 간 고발장이 잇따르는 혼탁 경선으로 흘러갔다.

문제는 경선은 끝났지만 그 후유증이 앞으로도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데 있다.

민 후보 측은 특정 시민의 명의를 무단 도용한 김 후보 지지 문자 대량 발송 사례를 적발해 민주당 중앙당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후보 측도 ‘신정훈·강기정후보의 단일화 여론조사 과정에서 역선택을 유도해 조직적으로 여론조사를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민 후보측을 광주경찰청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 때문에 경선 이후 후보들의 사법리스크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초대 특별시장은 할 일이 많다.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제대로 출범할 수 있게 준비작업, 아직 정해지지 않은 주청사 문제 등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경선 후유증에 계속 휩싸여 있을 경우 통합특별시는 앞으로 한발짝도 내딛지 못하는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하루빨리 경선 후유증을 털어야 한다. 광주·전남으로 분리된 지 40년 만에 하나가 된 광역 지자체 통합은 어느 누구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길’이어서 지역이 하나가 돼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 우리 모두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갈라진 민심을 치유하고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얘기다.

동행축제 연계 ‘광주상권 살리기’ 기대된다

광주시가 소비 위축으로 얼어붙은 지역 상권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한다.

지난 1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2026년 상반기 동행축제’ 기간에 맞춰 대대적이고 다각적인 지역 소비 촉진 사업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동행축제는 중소기업부가 주관하는 전국 단위 소비 촉진 행사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내수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캠페인이다.

특히 올 상반기는 미국-이란간 전쟁 장기화로 인한 극심한 물가 상승과 소비 심리 위축으로 지역 상권이 힘든 상황이어서 동행축제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더 절박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이 기간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해 광주은행과 협력해 지역화폐를 활용한 소비촉진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이벤트는 광주상생카드로 이 기간동안 누적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응모돼 오는 6월 추첨을 통해 총 600명의 시민에게 광주상생카드(5만원권 100명, 3만원권 500명)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또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공공배달앱 평가요와 위메프를 통해 총 3차례에 걸쳐 이용자 7000명에게 3000원 할인쿠폰을 선착순 제공하는 온라인 판촉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 소담스퀘어 광주를 중심으로 라이브커머스를 이 기간 동안 확대 운영하고 13개 업체가 참여해 네이버 쇼핑라이브를 통해 실시간 판매와 홍보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 기간 오프라인에서도 지역 전반에 소비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는 현장축제도 잇따라 열린다.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양동통맥축제가 양동통맥시장 일원에서 개최되고, 24일에는 남광주시장 불바다·야(夜)축제가 이어진다.

다음달 2일에는 충장라온페스타, 10일에는 1913송정역시장에서 난장콘서트가 열린다.

이번 동행축제에 연계된 지역경제살리기가 단순한 1회성 행사가 아닌, 참여 시민들은 혜택을 누리고 지역 상권에는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를 바란다 는 얘기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장 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치부 370-7040	경제부 370-7020	산업부 370-7010	사회부 370-7030	문화체육부 370-7234
편집부 370-7082	사건부 370-7050	논설실 370-7200	임원실 370-7000	총무국 370-7093
사입국 370-7090	광고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